

# “전주, 다시 전라도 수도로 우뚝 설 때”

###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식 갖고 본격 시정업무 돌입... 경제 대변혁·문화 산업 비전 등 제시

“강한 경제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서울, 뉴욕, 런던, 북경, 도쿄보다 더 잘 사는 땅으로 만듭시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1일 시청 강당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대 전주시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정업무에 돌입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1일 시청 강당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대 전주시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정업무에 돌입했다.

우 시장은 이날 취임 선서 후 취임사를 통해 “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500년 조선 왕조의 뿌리였다”면서 “이제는 강한 경제가 이끄는 대변혁을 통하여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산업이 꽃피는 전주, 청년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전주, 문화유산이 강한 경제의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전주, 이것이 제가 그리는 ‘천년 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이라며 “호남을 호령하던 전주의 1,000년 위상을 회복하고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또 “우리 전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로 발길 닿는 곳마다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며 “지금은 문화산업 시대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써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종교, 역사라는 자산을 기업의 시각으로 산업화해야 한다”고 문화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전주의 큰 꿈, 전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꾸고, 만들고, 나누자”고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전주 발전을 이끌어갈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바로 공무원”이라며 “품위를 지키며 일 잘하는 당당한 공직자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취임식을 마친 우 시장은 강당 출입구에서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첫 행보 산업현장 방문

### 전주페이퍼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우범기 민선8기 전주시장의 첫 행보는 강한 경제와 전주 대변혁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이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을 마친 후 팔복동 산업단지내 위치한 ㈜전주페이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을 마친 후 팔복동 산업단지내 위치한 ㈜전주페이퍼(대표이사 장만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시장의 취임 첫 행보에는 ‘기업이 강한 경제, 활력 넘치는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 주역’이라는 우범기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됐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만천 대표이사로부터 기업의 현황과 비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주페이퍼의 생산 공정을 볼 수 있

는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지난 1965년 새한제지라는 이름으로 팔복동산업단지내 동지를 튼 전주페이퍼는 현재 세계 3위 규모로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등 국내 신문용지 산업을 이끈 주역으로 손꼽힌다. 하루 평균 2500톤의 폐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DIP 생산능력을 갖춘 데다 국내 유일의 TMP 생산 설비로 친환경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등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전주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으로서 수많은 전주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온 오랜 일터이기도 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지로 대변신한 것처럼 전주 팔복동 산단을 꿈이 영그는 삶의 터전으로 바꾸겠다”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그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제14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 전주서 개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변화와 포용의 시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과제’ 주제 진행

‘책의 도시’ 전주에서 도서관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전주에서 ‘제14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변화와 포용의 시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어린이·청소년의 교육 및 정보격차 현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국가 도서관들의 활동 사례가 공유됐다. 첨단기술 발전 및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다양한 신기술을 도서관에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도 논의됐다.

심포지엄 첫날에는 조병영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의 ‘변화와 포용의 시대의 뉴리터러시’ 기조발표를 시작



으로 드니즈 아고스토(Denise Agost) 드렉셀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불공평과 특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공공 도서관 내 청소년 서비스’ 피라주 시 기립도서관 박노식 관장의 ‘제페토

를 활용한 온라인 정보활용교육 사례’ 등 국내외 전문가 11명의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후로 14회를 맞는 이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최신 동향 파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틀째인 1일에는 국제심포지엄의 참가자들이 전국 유일의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주만의 특색있는 도서관과 도서관 정책을 살펴봤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전주시청 로비 4개의 책가둥이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기둥이 되고 있는 ‘책가둥도서관’ △여행자들의 반짝이는 길잡이가 돼주는 ‘다기여행자도서관’ △전주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금암도서관’ △전주의 멋과 정체성을 담은 ‘연화정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박주국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책과 도서관에서 앞서가는 도시가 바로 전주이며, 이런 도시에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라감영서 역사문화 즐겨요”

###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체험프로그램 7·8월 ‘전주팔경’ 창작곡악공연 진행

찬란한 전주의 역사가 담겨있는 전라감영에서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라감영에서 ‘호남제일성, 전라감영 역사의 울림’이라는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라관찰사 해설투어 △전라감영배, 관찰사를 이겨라! △전라감영 야외 방탈출 등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전라관찰사 해설투어’는 서유구·최유경·김성근·조한국·안경공 등 조선시대 호남의 수부사를 관리했던 전라관찰사 5인으로 분장한 배우들로부터 생생하고 재미있는 역사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와 3시 두 차례씩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전라감영배, 관찰사를 이겨라!’는 조선왕조 역사 속 인물 5명의 관찰사와 함께하는 놀이 콘텐트다. 비석치기와 배탈통을 보아라, 창과 방패, 제기치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전라감영 야외 방탈출’은 지난 해의 경우 사전예약만으로 신청이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를 얻은 코너로, △비밀 △능부 김 씨 이야기 △정인이의 하루 △누가 죄인인가 △임무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됐다.

이 방탈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여행자는 문화예술공작소 블로그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참여 시 상품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7월과 8월 두 달간 전라감영에서 전라감영 활용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 ‘전주팔경’을 선보인다. ‘전주팔경’은 옛 전라감사가 유립과 목객들을 초대해 한벽당과 기린봉 등 명소를 유람하며 공연과 잔치를 벌였던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제작한 창작곡악공연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라감영을 배경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특성을 살린 흥미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전라감영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체재 된 전라감영 인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청·장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일지리를 찾는 청·장년층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일자리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을 돕고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2년 제5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팬퍼코리아(화학제품 제조업체), 코웰패션(의류도소매 및 소품물류센터), (주)유안아이치(식품 제조업체), (주)태송(냉동식품 제조업체) 등 4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 업체들은 현장면접을 통해 총 20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행사에 앞서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행사담당사는 구인·구직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주력했다. 참여기업의 급여 및 근무시간, 통근버스 노선 등 구

인조건에 맞춰 구직자 개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면접 대상자가 해당 업체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연말까지 3회 이상 더 개최해 청·장년층 구직자에게 일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훈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장년층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063-281-2812)로 구인 신청을 하면 맞춤형 알선과 현장면접을 통해 인력 채용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 다채롭게 열린다

### 시, 8·10월 개최... 22일까지 조선팝 음악인 22팀 모집

올 하반기 전주에서 전통가락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조선팝’ 축제가 두 차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총 네 차례 ‘2022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은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올해는 일상회복

에 맞춰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조선팝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8월과 10월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22일까지 조선팝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술가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전통음악에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조선팝을 30분 정도 단독 공연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나이, 지역제한 없음)다. 시는 서류 및 비대면 실연 심사를 거쳐 최종

22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 22개 팀에는 각각 3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이 지급된다.

8월에 열리는 조선팝 페스티벌에서는 이들 22개 팀과 지난해 참여한 음악인을 포함해 매회 3팀씩 총 12개 팀이 공연을 펼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조선팝 예술가는 전주시청 누리집(jonju.gn.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egyouth7@dau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 추진 사무국(063-226-2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 미니취업박람회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지난 1일 센터 민들레홀에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정 교육생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면접과 채용이 이뤄졌다.

현장면접에는 구직자 80여 명과 △전북 글로벌유통물류사업 협동조합 △디지털농부 △수병원 △메이커팩토리 △주식회사 두드림 △유한회사 마중길전주관광호텔팜스 △전주주간보호센터 △비지팅엔젤스 등 다양한 직종의 8개 기업 인사담당자들, 그리

고 채용 계획이 있는 31개 기업 인력이 현장에 참여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부대행사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컬러진단 △지문적성검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됐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박람회를 개최했다”면서 “앞으로도 한사람의 상담, 훈련, 취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취업을 위한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성 취업률이 향상되고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